

김광수의 체질개선 1년... '최대 실적'으로 답했다

(NH농협금융 회장)

NH농협금융

NH농협금융지주가 사상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지주 출범 이후 처음으로 순이익이 1조원을 넘어선데 이어 올해 1분기 순이익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웃돌았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이 취임하면서 내세웠던 경영체질 개선이 그대로 실적 호조로 이어졌다. 지난달 30일로 취임 1주년을 맞았지만 "대한민국에서 누구보다 잘 생긴 금융그룹으로 만들겠다"는 김 회장의 행보는 2년차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은 "단기 실적을 넘어 지속가능 성장을 위해서는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농협금융의 미래를 책임질 중장기 전략을 착실히 수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순의 목표 1조5000억원 '청신호'

1일 농협금융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당기순이익은 432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늘었다. 지주 출범 후 1분기

기준으로 4000억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자이익, 유가증권 운용수익 등 영업이익은 늘어난 반면 대손비용은 줄었다.

자회사별로는 NH농협은행과 NH투자증권의 실적호조가 농협금융의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순이익은 은행 3662억원, 증권1711억원으로 분기 기준으로 모두 최고의 실적이다.

농협금융은 김 회장 취임 첫 해인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1조2189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 올해 당기순이익 목표 1조5000억원 역시 달성할 것으로 보이면서 취임 이후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기록할 가능성도 커졌다.

◆취임 2년차 '디지털 전환 가속화'

김 회장이 올해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것은 농협금융의 디지털화다.

그는 지난달 9일 1분기 경영성과분석 회의에 참석해 "직원 모두가 디지털 금융에 대한 기본 마인드와 역량을 확보할 수 있는 직원 육성방안이 필요하다"

경영체질개선 통한 실적 호조
1분기 당기순이익 4327억원
영업이익 늘고 대손비용 줄어
취임 2년연속 최대 순익 기대
'디지털 전환' 고도화 속도



김광수 NH농협금융 회장

며 "디지털 금융회사로의 전환에 대비한 조직, 인력운용 등 전방위적인 대응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먼저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하고 차별화된 디지털 채널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농협금융은 지난해 인증, 상품가입,

퇴직연금 등 5개의 모바일 앱을 통합한 'NH스마트뱅킹 원업(one-up)'과 농협금융 공동 플랫폼인 '올원뱅크3.0'을 출시하고, 카드·보험·증권 등 계열사의 디지털채널을 전면 개편했다.

올해는 디지털 채널의 프로세스나 사용자환경을 간소화하고 신기술을 접목해 고객 중심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

며, 빅데이터 기반의 개인화 서비스를 더욱 정교화한다. 혁신금융서비스에는 관련 규제를 유예하거나 면제해주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대상으로 농협손해보험의 '온오프(On-Off) 해외여행자보험'이 선정되기도 했다.

농협금융의 디지털혁신 전초기지 'NH디지털혁신캠퍼스'도 문을 열었다. 국내 금융권에서는 최대 규모다.

김 회장은 "NH디지털혁신캠퍼스로 혁신 스타트업과의 상생·협력, 시너지를 발휘해 기업가치 1조원 이상의 유니콘 기업으로의 육성과 디지털 분야 신사업 발굴, 농협금융 디지털 전환이라는 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농협금융은 경기하락 가능성에 대비해 실행력 높은 리스크관리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밀착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그룹 산업분석시스템 통합 등을 통한 적시성 있는 정보로 계열사와 영업현장에서의 활용도를 제고키로 했다. /안상미 기자 smahni@metroseoul.co.kr



지난달 30일 서울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에서 열린 '제6기 KB호민관 발대식'에서 허인 KB국민은행장(뒷줄 가운데)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객 목소리 전달 '6기 KB호민관' 발대식

KB국민은행 9대 1경쟁률 기록

KB국민은행은 지난달 30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제6기 KB호민관'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2014년부터 시작된 KB호민관은 고객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KB국민은행의 대표적 고객패널 제도다.

지난 3월에 실시한 KB호민관 모집은 9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보였으며, 1차 서류심사와 2차 면접심사를 거쳐 최종 10명의 고객이 제6기 KB호민

관으로 선발됐다.

제6기 KB호민관은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6개월 동안 ▲주제별 활동보고서 작성 및 발표회 참석 ▲매월 정기모임 및 수시과제 수행 ▲신상품 및 신규서비스 FGI 참여 등을 통해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게 된다. KB국민은행은 이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의견을 은행 전반에 신속하게 반영해 실질적으로 고객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신한은행 '키자니아 드림 적금' 가입 이벤트

신한은행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린이를 위한 직업체험 테마파크 키자니아와 함께 '신한 키자니아 드림(DREAM) 적금'을 출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상품은 최고 이자율 연 2.75%로 최근 3개월 적금 최초 가입 고객 연 1.0%포인트, 키자니아 고객 모두에게 연 0.5%포인트 특별우대 금리를 제공하는 1년제 자유적립식이다.

신한은행은 '신한 키자니아 드림 적금' 가입자에게 키자니아 2인가족 입장권 35% 할인 쿠폰과 키자니아 전용 화폐인 '키조' 쿠폰을 적금 가입 즉시 신한은행에 등록된 핸드폰 번호를 통해 제공한다.

신한 키자니아 드림 적금의 상품 출



시를 기념해 신한은행은 오는 7월 말일까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선착순 신규 고객 1000명에게 스타벅스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하고, 신한 플러스를 통한 상품 신규 시(잔액 5만원 이상 계좌 대상) 매월 추첨을 통해 30명에게 키자니아 2인가족 무료이용권과 100명의 고객에게 마이신한포인트 1만점을 적립해 준다.

/안상미 기자

작년 장외파생상품 거래 1경6304조 '사상 최대'

시장변동성 커지면서 헤지 수요 증가

지난해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거래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년 중 금융회사의 장외파생상품 총 거래규모(명목금액 기준)는 1경6304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8% 증가했다. 지난 2016년 1경2644조원, 2017년 1경3962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했다. 이자율과 환율 등의 시장변동성이 커지면서 헤지 수요가 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장외파생상품 잔액은 9279조원으로 전년 말 대비 16.8% 증가했다. 역시 역대 최대치다.

기초자산별로는 통화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1경2538조원으로 전체

거래규모의 76.9%를 차지했으며 ▲이자율 3493조원(21.4%) ▲주식 223조원(1.4%) ▲신용 28조원(0.2%) 등의 순이다.

금융원 관계자는 "대외리스크로 인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은행의 고객거래와 이를 헤지하기 위한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가 늘었다"며 "증권사의 해외투자를 위한 외화조달자금의 헤지 수요도 가세해 통화선도 거래규모와 잔액이 모두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잔액기준으로는 이자율 잔액파생상품의 거래가 5829조원으로 전체 잔액의 62.8%를 차지했고 ▲통화 3256조원(35.1%) ▲주식 91조원(1.0%) ▲신용 82조원(0.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회사가 장외파생상품을 중개·주

선한 거래규모는 197조50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1.1% 증가했다.

특히 주식 관련 장외파생상품의 중개·주선 거래가 전년보다 80% 이상 급증했다. 국내 증권사들의 파생결합증권 헤지를 위한 주식스왑 거래가 증가하며 이를 중개·주선한 규모도 동반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원 관계자는 "최근 장외파생상품의 거래규모가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으로 회복되면서 금융시장의 시스템 리스크가 확대될 우려도 있다"며 "비정상 장외파생상품 거래에 대한 증거금 교환 의무, 거래정보저장소(TR) 도입 등 거래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 개혁 프로그램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산은, 전산 교체... 4~7일 금융거래 중단

ATM은 내일 18시부터 중단

0시부터 7일 06시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다.

산업은행이 전산시스템 교체로 4일부터 7일까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산업은행은 1일 새롭게 도입되는 전산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위해 오는 4일

이에 따라 산업은행 고객은 해당기간 동안 인터넷뱅킹_스마트폰뱅킹_텔레뱅킹 등 전자금융, 체크카드 사용, 자동화기기(ATM) 현금 입·출금과 송금 등

모든 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없다.

ATM은 3일 오후 6시부터 중단된다.

산업은행 관계자는 "연휴기간 동안 사용할 현금의 인출 및 결제자금 등의 이체는 5월 3일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다"며 "새로운 시스템을 기반으로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고객에게 더욱 안전하고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우리아이 시드머니 펀드' 가입하면 상품권

NH농협은행 SPC 상품권 지급

NH농협은행은 다음달 말까지 어린이펀드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SPC상품권을 지급하는 '우리아이 시드머니 펀드(Seed Money Fund)'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농협은행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펀드에 5만원 이상 신규 가입하고 자동이체를 신청하는 고객에게 가입금액에 따라 SPC 상품권(5000~1만원 2종)을 지급한다.

WM연금부 신용인 부장은 "새싹돈이나 용돈을 활용해 어린 시절부터 펀드에 가입해 올바른 경제 개념을 접하



고, 자녀를 위한 미래자금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안상미 기자